

nVIDIA
GTC GPU
TECHNOLOGY
CONFERENCE

Scale Out

메리츠 현장 탐방기

nVIDIA
GTC GPU
TECHNOLOGY
CONFERENCE

Scale Out



글로벌 투자전략-선진국

Analyst 황수욱

02. 6454-4896

soowook.hwang@meritz.co.kr

Contents



Part 1	GTC 키노트 연설: 'Scale out'	9
Part 2	전시 부스 탐방: 눈에 띄었던 AI 헬스케어	29
Part 3	관심 세션 노트: 로보틱스, 양자	37



1 GTC 키노트 연설: 'Scale out'

AI 수요 급증과 확산

- 컴퓨팅 수요의 변곡점. Scale up(수직적 성능 개선)과 Scale out(수평적 확산)이 동시에 필요. Reasoning AI와 Agentic AI의 부상으로 AI 컴퓨팅 수요 급증. AI 워크로드 복잡성은 전세계 데이터센터 투자 촉진
- 새로 출시되는 Blackwell NVL72 아키텍처는 Hopper 대비 최대 40배 성능 개선. Rubin Ultra, Feynman 등 1년 주기 차세대 GPU 출시 로드맵 제시. AI 인프라 혁명, 첨단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 솔루션(Spectrum-X, CPO Photonics)으로 AI 데이터센터의 확장성과 효율, 에너지 소비 개선
- 중장기적인 종합 AI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 준비 지속. AI Factory(데이터센터) 종합관리 OS Dynamo, 차세대 AI 비즈니스인 Physical AI에서 필요한 OS 및 파운데이션 모델(Isaac GROOT N1, Newton) 선점 및 오픈소스 공개. 엔비디아 생태계에 머무르게 하려는 전략
- 단기적으로는 B200 라인업 기반의 강력한 실적 서프라이즈가 확인되거나, 중기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숫자가 새롭게 확인될 때가 엔비디아의 리레이팅 타이밍일 것으로 생각

2 전시 부스 탐방

눈에 띄었던 헬스케어 AI

- 전시 부스의 전반적인 인상은, AI 서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가장 활발해 보였음. 스타트업 중에는 이전 GPU인 H100 보유 사실 자체를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보였음. 이외 산업 중에는 AI 헬스케어가 상용화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음.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영상 기술과 AI가 만나 두 기술을 갖춘 엔비디아 플랫폼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의료 비용을 낮춰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로봇틱스, XR/VR 부스의 경우, 새로운 모습의 로봇이나 관련 서비스는 눈에 띄지 않았음. 다만 대부분 기업이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 전기차/자율주행 부스는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모습

3 관심 세션 노트

로봇틱스, 양자

- 로봇틱스 산업에서 하드웨어는 빠르게 발전. 반면 로봇을 구동하는 AI는 과제로 남아 있음. LLM과 다른 점은 로봇틱스 AI를 훈련시킬 데이터 부족. 텔레오퍼레이션(원격 조작)이 가장 양질의 데이터지만 비싸고 인류 역사에서 축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현실과 다르다는 점이 한계였으나, 엔비디아 디지털 트윈 생태계를 활용해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로봇틱스 성능 개선 사례 노력들이 활발
- 양자 컴퓨팅 세션은 젠슨 황이 키노트 연설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참여한 세션. 양자컴퓨터는 새로운 과학/공학 도구이며 고전 컴퓨터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적 관계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